

이번주부터는 새로운 Unit 입니다.
Unit 30 Session 1 Peter Preached in Jerusalem.

암송구절: 로마서 10:14

저학년은 13 절만, 고학년은 14 절까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외워보세요!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만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¹³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a]

¹⁴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Big Picture Question: Why does God command Christians to tell others about Jesus?
We tell others Jesus so they will hear and believe the good news.

1. 진리의 성령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 했겠지만, 이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번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때가 있지요. 당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당해보면 이제 그 말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세상일도 그런데.. 하늘의 일을 도무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곧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실것입니다.

(요 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일이 이런 것이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며 힘을 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므로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들은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놀라며 당황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술에 취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메세지를 전합니다. 메세지를 전함은 쉽게 말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이다 생각하고 읽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설교량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지난 밤에 준비하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것일까요? 당연히 즉흥이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이 예수를 가르키고 있다는것은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 베드로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해주십니다. 우리안에 먼저는 이해를 하든 못하든 말씀을 담아두어야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해주시는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2.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듣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을것을 요청합니다. 들어야 산다고.. 너희 동족 중에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와서 들으면 네 영혼이 살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하며

사욕을 따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많은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듣는것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입니다.

3. 제 삼시

유대인들은 낮의 시간, 해 뜰때부터 해 질때까지를 열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를 12 시간으로 보면 제 삼시란 아침 9 시입니다. 아침 9 시니까 취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침 9 시니 아침술을 안 마셨다는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9 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1 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4 시 (오전 10 시) 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그 당시는 하루 두끼 먹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4. 요엘서를 선포하고 해석함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됩니다. 800 년 전 살았던 요엘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뜻을 해석해줍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주는것입니다.

- (욥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 (욥 2: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 (욥 2: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 (욥 2:3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 (욥 2: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

"그 후에" 라고 나온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는 말세에 라고 해석합니다. 요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 년 전에 일어난 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선지서 입니다. 그러나 선지서에는 늘 그 시대 뿐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그 후에"는 바로 메시아가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하면 세상이 끝날 때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때까지를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사람들도 말세를 살고 있고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는것입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노인들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 노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젊은 세대들이 삼포시대 사포시대에도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이겠지요? ㅎㅎ

그리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영화로운 그 날, 주님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분은 어처구니 없이 죽으신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주신것임을 그러나 사망의 권세도 그를 붙잡아 두지 못하였기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5. 성령님의 역사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성령님으로 인해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다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때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가르쳐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질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들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십시오. 어려우시면 새번역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십시오. 금요 모임에서는 함께

나뵈는데 너무 길어질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메시아를 미리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다윗의 시를 설명하며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즉..

(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착하게 살아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등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설교를 끝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훌륭한 설교는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럴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행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6. 참된 회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탄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때 복음이 복음이 되는것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것을 한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선포했고 그들은 그저 이 진리를 들은것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때문입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찢림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니 cut to the heart 입니다. 예수를 죽인 그 돌같은 마음에 찢림이 들어갑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그 돌같은 마음을 찢른것입니다. 찢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찢리기만 하면 안됩니다.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행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5)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단지 질질짜는게 아닙니다. 회개가 너무나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서지는 않고 매일 세상과 함께 세상속에서 죄만 짓고 교회와서는 회개(?)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과 벗되어 사는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인삼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받는 것이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코 세례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말세를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십니다. 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주인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회개이지 밤낮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는것은 아직 주인이 바뀌어진게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럴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되는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것입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콘스탄티누스 이후 4 세기 동안 회심의 개념이 변질되어 온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가 되기 썩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몇주 교육받으면 너무나 쉽게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돈과 권력에서 멀어지고 관계는 단절되고 소외되기 일쑤이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면 아주 까다롭고 불친절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내부 침입자는 아닌지 의심부터 받아야 했으며 회심의 확인을 받기 위한 훈련과 검증 절차가 3 년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지, 병든자를 방문하는지,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원수를 용서했는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확인을 한 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것이 힘들면 누가 믿을까 싶은데 믿지 않는것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고 갈수록 기독교인이 늘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 누스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만든 뒤 회심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 또는 회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필요한 때임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서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7. 말씀이 일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해집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잘 선포했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도 늘 삼천명이 믿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됩니다. :) 사도행전 7 장에 보면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구약을 확 꿰뚫으며 회당에서 설교를 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스테반은 실패한 것일까요? 성령이 역사를 하신것일까요? 안 하신 것일까요? 스테반은 죽고 알수 없었지만 그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한 청년 사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합시다. 아이들이 안 듣는거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자로서 찢림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바울의 고백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주님께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8.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자신이 경험한 그 성령의 체험을 자랑하고 전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전도는 교회오라고 교회오면 좋다고.. 라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증인으로 일어설때인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워나갈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안에 증인되 삶을 회복시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저 또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의 사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안에서

조이전도사드림